



1980년도 정기총회 성대히 개최

— 신임 회장에 이필용 소신 종계원 대표 피선 —

본회 1980년도 정기총회가 12월 19일 (금) 오후 2시부터 대한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전국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다.

본회 임덕성 사무국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류종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의 계속되는 불황속에 전 양계인의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어려움 속에서도 병아리 수출을 통해 국내 양계산업의 신장을 국내외에 선양한 한협 종계장, 천호부회장, 한일농원 등 원종농장 3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명했다.

또 축산정책은 우리 축산인들의 협력 노력으로 과거 미국 생산에 집중투하했던 지원을 이제는 식량차원에서의 축산업에도 그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할 때라고 역설하고 차제에 전 양계인은 부화·육계·채란·감별분과 등 총회단결 하여 이번 총회를 기회로 양계업계 뿐 아니라 축산업계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농수산부 축산국 지설하 국장은 치사를 통해 국제 경기가 인프레이션을 면치 못하고 국내 양축업도 무척 어려운 가운데 양

축가와 정부는 합심단결하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전제하고 정부는 금년 부로 일려 수매 비축, 도계시설 자금 방출, 돼지고기 연동제 실시 등 다방면으로 양축가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생산자들의 지혜를 모아 생산조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표하다.

사료문제에 언급 이상기후로 인한 사료곡물 파동으로 사료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양축가의 고충을 얘기하고 정부는 앞으로 자급 사료를 다방면으로 개발 벗집사료이용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녹사료의 펠렛화 등으로 5~10%의 양계사료를 절약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물론 양축가 측에서도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경영방식의 토론 등을 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축산물 가공과 축협 중앙회 발족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총회는 전임 오세정 회장에 대한 기념패 증정과 문세근 (축산진흥회 이사) 씨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한국사료협회 (회장 :

●대한양계협회 소식

정태원)와 월간 현대양계사(대표 : 김중곤), 전국 계우회 연합회(회장 : 김중현), 김선종(가축위생 연구소), 이상운, 강호, 윤영중(이상 축산진흥회)씨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병아리 수출로 공이 큰 한일농원(대표 : 차두홍), 천호부회장(대표 : 이계조), 한협종계장(대표 : 박준영)과 본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박철(경북지부), 박규병(경북지부), 박재류(부산·경남지부), 김철한(전북지부), 박종인(전남지부), 차상진(부화분과), 백명기(육계분과), 김광옥(채란분과), 박종구(감별분과), 신정일(감사), 안양분회(분회장 : 임종균)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었다.

이상윤,

이사 : 이규상, 신흥종, 류종래, 박준영, 김영환, 조만우, 김성경, 강세춘, 허돈, 심준식, 강희구, 김경웅, 이태근, 정철문, 황은현, 남일우, 외 각도지부장,

감사 : 남기성, 윤경중,

본회 제5대 회장으로 피선된 이필용 회장은 100마리의 병아리로 현 경인구도로 신양촌입구의 소신종계원에서 양계를 시작하여 양계로 성공한 토박이 양계인이다.

양계협회의 전신인 한국가금협회 창립멤버로 가금협회 시절에는 임원 및 부회장직을 맡아 오늘의 협회가 있기까지의 기틀을 다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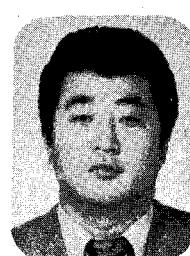
(민 덕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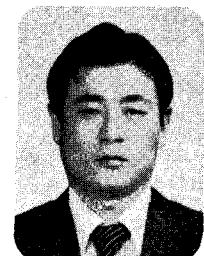
(김 광 옥)



(백 명 기)



(이 보 연)



(이 상 윤)

이어서 신정일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은 후 80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예산가 결산에 이어 1080년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의 개선이 있었다.

회장은 대의원들의 뜻에 의해 만장일치로 이필용(소신종계원 대표)씨가 당선되었으며 각 임원은 분야별로 전형위원회 10명을 추천하여 전형 위원회에서 선출하였다. 선출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 김동곤, 김춘수, 박근식, 설동섭, 오봉국, 오세정, 이계조, 차두홍,

부회장 : 김광옥, 민덕기, 백명기, 이보연,

데 노력하였다.

특히 부회장 재직시 현 김포검단면 불노리에 7천여평의 검정소 부지를 확보 장만 600여평의 검정계사를 신축하여 당시 가금협회의 주된 사업인 검정사업을 본 궤도에 옮겨놓는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때의 공로로 농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그 후 현 양계협회를 창설하는데 산파역을 맡았고 한때는 양계협회 회장 직무 대리로 실제적인 협회운영도 맡아온 협회와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 회원들은 자연히 이필용 회장을

●대한양계협회 소식

생각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필용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협신적이어서 부천지역에 서는 새로 이사온 사람을 빼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한국반공연맹, 라이온스크럽 등 지역사회 의 봉사단체를 이끌어 왔으며 이 지역 대의원 을 역임한 바 있다.

이제 다시 우리 양계업계는 이필용 회장의 경륜을 필요로 하며, 우리 업계의 산적한 어려운 문제들이 이필용 회장의 솜씨로 하나하나 해결되는 쾌감을 양축가들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한편 이 날 본회 정화위원회는 일본 스스끼 수상의 망언과 국내 내정간섭과 언론의 편향적 보도, 재일동포 차별대우 등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충주분회 현판식 성료



지난 해 11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충주분회의 등록승인안이 통과됨에 따라 12월 15일 충주소재 충주분회(분회장 : 이종득, 충주시 교현동 605번지 17통 1반, 전화 : 3819) 사무실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이종득 분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분회 발전과 분회원들의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분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본회 류종래 회장은 어려움 속에서 육계 경영을 하는 분회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료가격의 앙등속에서 육계 시세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80년도 협회에서 여러 차례 개최된 육계분과 회의에서 생산자 대표들이 생산조절을 적극 추진한 영향이 크다고 치하하면서 생산자 모두가 단결하고, 육계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생산 조절과 생산비 절감 노력을 계속하면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분회를 이끌어가는 분회장은 적극 뒷받침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판식은 기념촬영이 끝난 후 조촐한 연회를 갖고 업계 제반문제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가 있었다.

본회 금년도 시무식 거행

— 양계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

본회는 지난 1월 5일 오전 본회 회의실에서 1981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신임 이필용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전국 양계인의 권리보호와 업계발전을 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열성을 다 할 것을 전하고 협회의 주인인 전 회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업계 발전측면에서 조사 연구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는 각부별 업무보고에 이어 1981년 새로운 업무에 들어갔다.